



2023. 3. 13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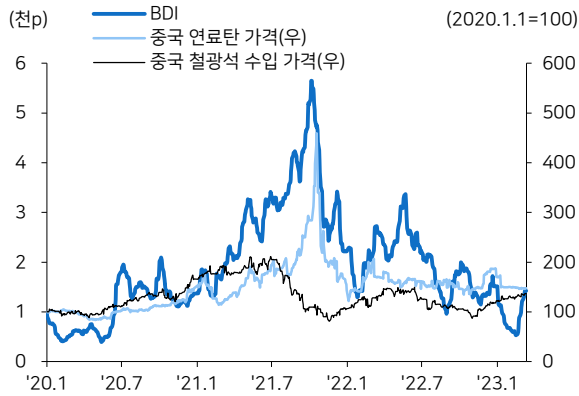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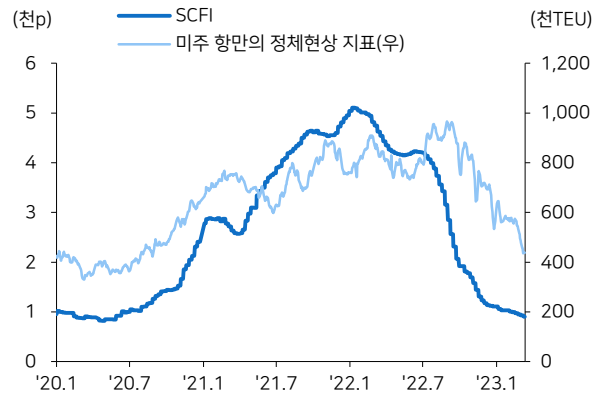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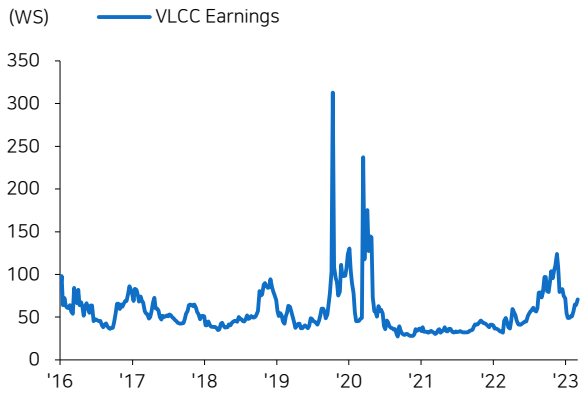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424.0p(+45.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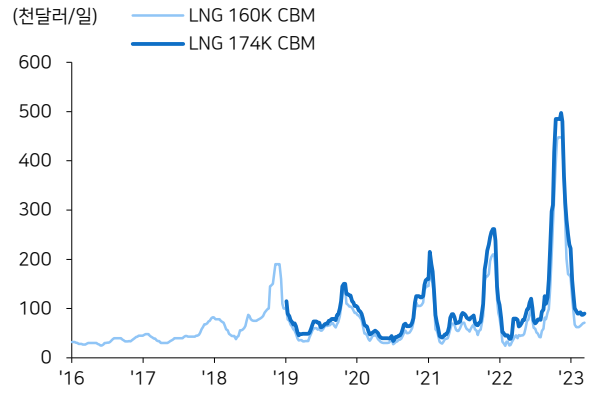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06.6p(-24.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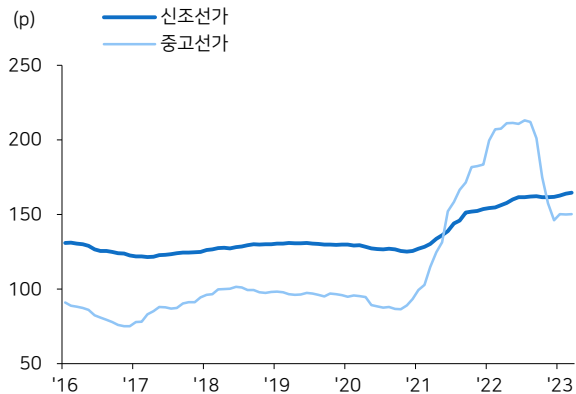
VLCC Spot Rate 92.8p(+22.0p WoW)



LNG Spot 운임 71.3천달러(+1.3천달러 WoW)
90.0천달러(+2.5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4.6p(+0.3p WoW)
150.3p(-0.8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707.0달러(+11.0달러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정부, 저가 수주 RG 발급 제한 방침

정부가 건조 원가의 100%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체결한 수주 계약에 대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제한하는 등 원가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르면 상반기 중 RG 발급 기준을 강화를 포함한 조선업 수주 적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짐. 정부는 저부가가치선 비중을 줄여 중국과의 시장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함. 정부는 2021년 기준 64%인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75%로 끌어올릴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음. (선박뉴스)

Breakthrough: Saudi Arabia, Iran restore ties in landmark deal brokered by China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정세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단절되었던 외교 관계를 7년만에 복원하고, 두 달 내로 대사관과 공관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짐. 중국은 사우디 원유의 최대 수입 국이고,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알려짐. (Upstream)

Fixture frenzy: VLCCs peak over \$100,000 per day amid flurry of activity

많은 성약이 체결되며 VLCC 운임은 일주일 사이 두 배 가량 상승했다고 보도됨. Baltic Exchange는 3월 3일 36,000달러/일에서 10일(금) 70,400달러/일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함. 브로커 Fearnleys는 다수의 미국 걸프만-중국 항로 성약이 체결되며 대서양 시장 운임 상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함. 중동-중국 항로 운임도 80WS대 수준인데, 3월에 아직 20~25개 성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추가 상승여력이 있다고 설명함. (Tradewinds)

VLCC surge likely to boost smaller tankers in trickle-down effect

VLCC 운임 상승으로 중 소형 원유운반선도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도됨. VLCC 시장이 타이트하면 용선주들은 대안을 찾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중국 수요로 VLCC 운임은 전주 대비 약 두 배 상승한 바 있음. VLCC는 200만 배럴, Suezmax는 100만배럴을 수송할 수 있는 선형인데, 3월 Suezmax 운임은 하락했지만 다음 주부터 상승할 전망으로 언급됨. (Tradewinds)

China could outmuscle Europe in the hunt for LNG warns IEA chief

IEA가 중국의 LNG 수요로 오는 겨울 유럽의 LNG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됨. 지난 겨울보다 더 추운 겨울을 겪게 되면 중국의 경기 회복까지 더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함. 2023년 추가되는 LNG 생산 capacity는 약 20BCM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언급됨. S&P Global은 추가 Capacity를 17BCM으로 IEA 전망치보다 낮게 전망했다고 언급됨. (Upstream)

대한항공 · 아시아나, 4월 국제선 운항 코로나 이전의 60%대 회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4월부터 팬데믹 이전의 60% 이상까지 운항을 확대한다고 보도됨. 대한항공은 국제선 78개 노선에서 주 622회 운항해 2019년 수준의 67%까지 늘릴 예정임. 아시아나항공은 55개 노선에서 주 349회를 운항해 2019년 대비 62%까지 회복할 예정임. 일본 주 10회, 중국 주 15회, 유럽 주 2회 등 주 37회 운항이 늘어날 예정임. (KBS)